# 교사 부담 덜고 체험학습 살린다
#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버스' 운영

**체험학습 운영 전반 교육청 담당**
**평화·통일·안보 9개 코스 기획**
**405 학급 신청… 전년比 3배↑**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안전 책임과 행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험학습 지원을 직접 맡는 '통일교육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6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통일교육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프로그램 구성, 장소 섭외, 버스 임차, 강사·안전요원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식사 제공 등 체험학습 운영 전반을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교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52교 288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초6·중3·고3 학생들도 학년말 전환기 교육과정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청은 평화·통일·안보 관점에서 분단과 평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9개 코스를 기획하고, 학교가 이를 선택해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전문 과정을 이수한 강사도 동행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안전사고 책임과 행정 부담 문제로 학교 외부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통일교육버스 신청은 405학급으로 지난해 138학급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5억1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2023년 22교 58학급에서 올해 152교 288학급으로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교육부, AI·디지털 평생학습 강좌 활성화

**대학 우수 학습자원 활용해**
**온라인 공개강좌 무상 제공**
**건국대·서울대 등 신규 선정**

교육부가 대학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등교육 수준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의 올해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재교육(reskilling)과 향상교육(upskilling)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우수 학습자원을 활용해 온라인 공개강좌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AI·디지털 분야 강좌를 늘리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전환(AX), 로봇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도대학에는 총 10개교가 선정됐다. 자율 분야에서는 ▲건국대(글로컬)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이름을 올렸다. AI·디지털 분야에서는 ▲광운대 ▲세종대 ▲한성대가 선정됐다.

개별강좌 운영기관으로는 총 10개 대학이 뽑혔다. 자율 분야는 ▲부산디지털대 ▲서울디지털대 ▲세종대 ▲영남대(2개 강좌)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AI·디지털 분야는 ▲경희대(2개 강좌) ▲부산디지털대 ▲성균관대 ▲한국방송통신대, 경제·금융 분야는 ▲대구한의대가 선정됐다.

국내외 석학강좌 사업 운영기관으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위대한 수업'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AI·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 석학 강의를 EBS 정규방송과 K-MOOC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재직자를 위한 AI·디지털 집중과정도 새로 선정됐다.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AI·디지털 30+ 집중캠프' 운영기관으로는 ▲계원예술대 ▲동국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춘해보건대가 선정됐다.

3개 안팎 묶음형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운영기관으로는 ▲대구한의대(바이브코딩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1인 AI 마케팅 과정) ▲서강대(AI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업무혁신 및 의사결정 지원 과정) ▲서울디지털대(공공데이터 분석 및 AI 실무를 위한 비즈니스 QGIS) ▲순천향대(AI 의료융합 전문가 되기)가 뽑혔다.

이들 과정은 재직자가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주말과 저녁 시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수자에게는 디지털 배지가 발급된다. 신규 강좌는 K-MOOC의 경우 이르면 10월 말부터, 재직자 집중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경과원, 파주 본원 첫 업무… 경기북부 균형발전 도모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현장중심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파주 본원 시대를 열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경과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조롱꽃로 117-46 동보타워 5층에 마련된 파주 본원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산업 현안 대응과 현장 중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8일 파주 본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과원

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과원은 앞으로 북부 산업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기북부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정책·산업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파주 본원에는 경영진과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 등 주요 부서 직원 45명이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을 신설해 기업 애로 대응과 산업 발굴,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성남시, 5년 만에 CIS 시장개척단 재가동

**중앙아시아 바이오·헬스케어 공략**

성남시 소재 한 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5년 중동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고있다. /성남시

성남시가 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5년 만에 독립국가연합(CIS) 시장개척단을 중앙아시아에 파견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지역 중소기업 7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보내 현지 수출 상담과 전시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CIS 시장개척 사업이다. 북미·동남아에 집중됐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면서 중앙아시아 공략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시장개척단에는 체외진단기기, 피부미용 의료기기, 건강관리 솔루션, 제약 원료 및 바이오 소재 등을 생산하는 성남지역 유망기업들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알마티 상담회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타슈켄트에서 현지 유통사와 의료기기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수출 상담을 이어간다. 특히 타슈켄트 일정은 제약 전문 전시회 '파마 유라시아 2026' 한국공동관 운영과 연계해 진행돼 유라시아권 전문 구매자 접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앙아시아는 최근 의료 인프라 고도화 정책과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지역이다. 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가 맞물리며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서울시, 내달 5일부터 개선안 적용**

서울시가 전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치며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와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 개선안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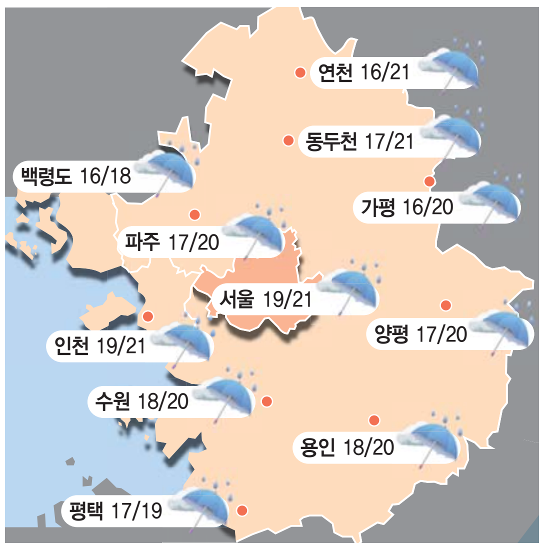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5:19 | 해짐 / 19:38

5월 20일(水) 음력 : 4월 4일

수도권 날씨 19~21℃

| | |
|---|---|
| 운동 지수 | |
| 빨래 지수 | |
| 세차 지수 | |
| 외출 지수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전 불똥, 주담대·차 할부까지 번졌다…G7 금리 22년 만에 최고 /사진 뉴시스

▲세금으로 트럼프 무도회장 경호비?…美상원서 '절차 위반' 제동

▲필리핀, 중국계 철강공장 급습 69명 체포…유해물질 취급 의혹

▲이란 대통령 "대화는 굴복 아냐"…이란 존엄·권리 절대 양보 없어"

▲"日초당파 일중우호연맹 간부 등 주일 中대사 면담…미중회담 등 논의"

▲우버, DH 지분 확대에 배민 인수설까지…배달 시장 '지각변동' 예고